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삶기술학교)"



제2회 청년의 날 및 청년주간 행사 ‘청년정책박람회’

지역별 청년정책 우수사례 모음

#충청남도

#청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삶기술학교)



청

년의 일자리 확충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산업 특성 방안을 발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충청남도는 청년이 농촌지역 자원을 활용하고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배움과 협업으로 자생하는 모델을 발굴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이 스스로 삶의 기술을 터득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술 학습 학교를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삶

기술학교는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 도시생활에 지쳐 제 2의 고향에서 대안적인 삶을 찾고자 하는 청년 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청년 지역 정착 자립 프로그램입니다. 총 3개월간 진행된 삶기술학교는 옷 짓기, 밥 짓기 등 삶의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삶기술 클래스’와, 서로 교육하고 전문가 초청 워크숍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삶의 기술 공유 프로그램’, 삶의 기술을 통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충청남도는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시골마을의 전통기술과 지혜를 배워 청년들의 자립 및 정착을 도모하는데 기여했고 실제로 12팀이 합동 커뮤니티형 기업으로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삶기술학교에서 배운 삶의 기술을 마을에 환원 및 공유하여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지역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다수 매체 언론 보도를 통해 농촌 재생 모델을 확산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